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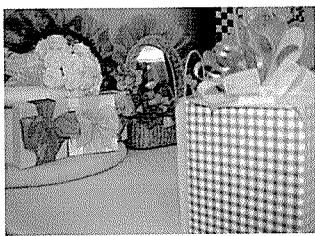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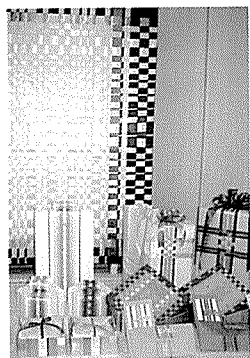


화제의 현장 I

상품에 덧붙이는 부가가치 2003 포장디스플레이 전시회 꽃과선물포장갤러리

정성이 돋보이는 포장은 제품이 선물로서 가치를 지니게 하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이웃 나라 일본의 경우 상품 포장이 독자 영역으로 자리 굳힌 지 오래며, '슈르프리즈', '앙쁘치파케' 등의 유명 제과점들은 돋보이는 포장으로 인해 고객들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

지난 4월 28~29일 양일간 양재동 aT센터(농수산물 COEX)에서 이러한 시도와 만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바로 2003 포장디스플레이 전시회 <꽃과선물포장갤러리>. 우림화에연합회가 주최하고 우림포장디자인, 수원리본클럽, 김영모과자점 등 관련 단체들이 주관한 이번 전시회는,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등의 시즌 포장부터 '실버', '골드' 등의 테마 포장에 이르기까지 총 23가지로 나뉘어진 주제 아래 다양하고 실용적인 포장 기법이 선보였다. 특히 일본 상품 포장계의 1인자 요시코 하세 선생이 초청된 포장 세미나는 선진 포장 기법을 익히고자 하는 이들로 성황을 이룬 행사였다.



▲리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리본 아트 포장법.

이날 전시회에는 '케이크 상자 포장', '시즌 포장' 등 일선 제과점에서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컨셉들이 눈에 띄었다. 우림화에연합회 이화는 회장은 "제품에 선물로서의 부가가치를 부여하고 보다 맛깔스럽게 보여주기 위해 포장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이번 전시에 참가한 김영모 과자점은 그 좋은 예"라고 제과점에서의 포장의 의미를 밝혔다.



▲예쁜 와인 선물세트 포장. 특별한 시즌마다 점포 한 코너에 자리해두고 판매하면 점포 이미지 향상에 한몫할 듯.

〈취재 및 사진·김미선〉

Interview 우림화에연합회 이화는 회장



우림화에연합회는 지난 30년간 꽃꽂이를 연구해 온 단체로서 전국에 걸쳐 1,000여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오랫동안 꽃을 활용해 작품 활동을 하다 보니, 선물로서의 의미가 큰 꽃의 특성상 상품화를 위해서는 포장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게 됐다. 이러한 상품 포장의 의의는 일선 제과점과도 일맥상통하는 것.

이에 상품 포장 선진국인 일본과 연계해 그동안 국제적인 기법을 익혀왔고, 이번에 상품 포장을 요하는 각 분야별 포장 전문가를 모시고 <꽃과선물포장갤러리> 전시회를 갖게 된 것이다. 앞으로도 활발한 전시회와 세미나를 통해 상품 포장의 중요성과 기술을 더 많은 분야,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화이트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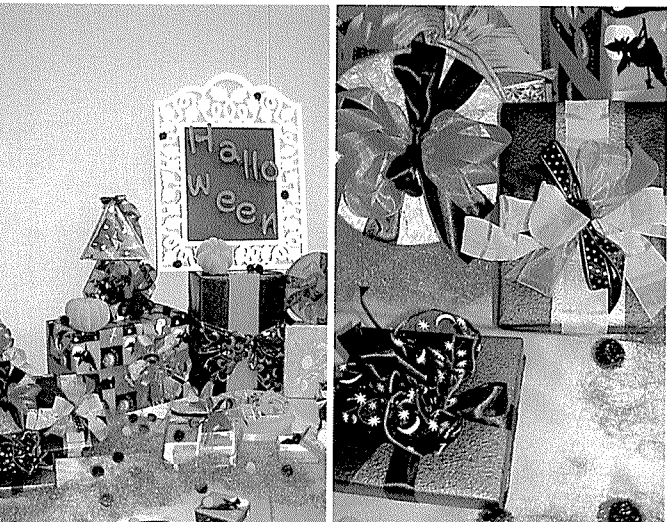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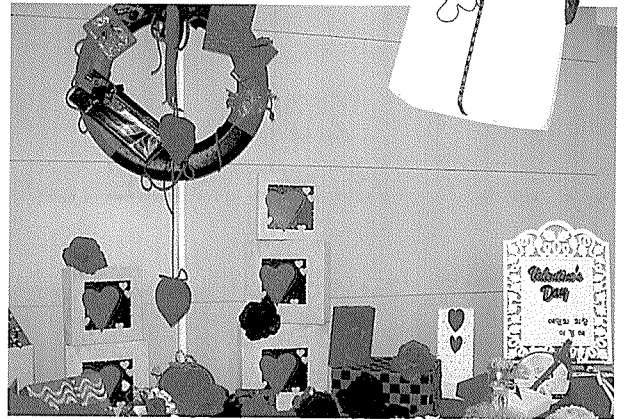
영원한 로맨틱 컬러 '핑크(Pink)'를 주제로 한 화이트데이 선물 포장.

김영모과자점 최윤정씨의 작품들로, 사탕으로 만든 꽃바구니, 빨간 하트가 촘촘히 박힌 레이스 리본 등 아직 국내에선 생소한 기법과 재료들로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발렌타인데이

정열의 붉은색을 잔뜩 사용한 발렌타인데이 선물 포장. 함께 사용한 검은색과의 강렬한 색대비가 세련미를 더한다.



할로윈데이

젊은층이 많이 모이는 상권에서는 할로윈데이를 전라적으로 활용하면 매출에 큰 도움이 된다. 호박 색깔 주황색과 으스스해 보이는 검은색이 잘 매치돼 할로윈데이의 느낌을 강조한다. 매장 데코레이션용으로 사용하면 시즌 분위기 연출에 좋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컬러는 단연 초록과 빨강. 골드와 실버를 곁가지로 첨가하면 이들 색채가 더욱 또렷해 보인다.

TIP for Bakery

조각 케이크 상자를 이렇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 재미나는 아이디어다.

